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한 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섬초소에 찾아오신 원수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에 오르시어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연평도를 바라보시면서 박정천 포병국장으로부터 남조선피괴군 서북도 서방위사령부의 최근적정과 새로 증강배비된 연평부대의 현황상태를 보고받으시고 새로 조직한 아군의 적대상물화력타격계획을 료해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남전선을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최정예포병집단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쓸라다질거리는 피괴들의 사동뺨을 완전히 분질러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력진지들과 포은폐부들을 돌아보시며 경성적인 전투동원실태를 료해하시였다.

리 한접없이 반들반들 검은 윤이 나는 포무기의 바퀴를 만져보시며 강도높은 훈련을 하면서도 포무기관리를 정말 잘했다고, 이곳 방어대군인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정말 기록하고 정이 더 폭 든다고 하시면서 전군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따라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에 새로 꾸린 바다물정제기실을 돌아보시며 담수생산과 공급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의 병영과 식당, 새로 꾸린 남새온실과 축사를 돌아보시였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장재도방어대가 더 멋있어졌다고, 몇해사이에 푸른 섬으로 변모되였다고, 특히 당에서 품들어 꾸려준 병실들과 살림집들을 깨끗이 관리하고 주변환경정리를 잘하고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강질유리를 씌운 남새온실에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도마도, 오이, 호박, 파, 진채 등 갖가지 남새를 가꾸고있는데 흐뭇하다고, 닭들이 쾌를 치고 살찐 돼지, 토끼들이 우글거리는 모양이 정말 볼만 하다고, 병영주변의 곳곳에서 광주리식감자농사도 짓고있는데 섬초소에 생활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부업선으로 잡은 물고기를 보시고 이만하면 섬방어대 군인들의 생활에 대해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물에서 북무하는 군인들까지도 섬방어대 군인들을 부러워한다는데 그럴 만하겠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의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와 포은폐부,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1포진지를 돌아보시면서 전투군무실태를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도영웅방어대에는 우리를 향하여 무모한 포사격을 강행한 남조선피괴화전광들의 침략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뭇개버림으로써 연평도불바다와 더불어 원수들에게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자량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연평도포격전은 정전이후의 가장 통쾌한 싸움이었다고,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빛나는 군공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입대한 군인들은 자랑스런 위훈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받아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영웅방어대의 본때를 다시금 과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전군적인 포사격경기에서 무도영웅방어대 1포가 단연 1등을 쟁취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전군의 앞장에 서라고 고무격려해주시면서 영웅포를 배경으로 포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도영웅방어대에 새로 꾸린 바다물정제기실에 들리시어 몸소 물맛도 보아주시였으며 병실, 교양실, 세목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도영웅방어대의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돌아보면서 전투동원준비실태와 군인생활문제에 대해

료해하였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모든 전투진지들이 싸움을 예견하여 튼튼히 다져졌고 만단의 전투진입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특히 섬초소군인들의 먹는물문제를 완전히 푼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포병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실전에 써먹을수 있는 화력타격조직과 지휘능력, 전투조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훈련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한 문제, 급변하는 정세와 전선정황의 요구에 맞게 항시적으로 강력한 화력타격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대한 문제, 위장이자 싸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위장을 철저히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방어대들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헤여지기 아쉬워 솟구치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며 따라서는 방어대군인들과 군인가족들에게 또 오시겠다고, 어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소원을 담은 노래소리가 절절히 울려 퍼지는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섬초소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숭엄한 화폭이 뜨겁게 펼쳐졌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수산성산하 단위들에서 여러척의 고기배 건조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성물을 안고 뚝뚝이 들어설 일념으로 수산부문 로동계급이 생산돌격전을 벌려 올해에 들어와 여러척의 고기배를 무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주수산사업소 로동계급은 철관, 용접봉을 비롯한 자재와 제작설비들을 그쫘히 갖추어놓고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짧은 기간에 어군탐지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장비들을 갖춘 300마력고기배를 무어냈다.

본사기자



자강력을 발휘하여 배수리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령 남배수리공장에서-

북남관계개선은 평화보장의 첫걸음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함께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도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민족이 갈라져살아야 할 조건으로는 될수 없으며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동성이 훨씬 더 크다.

북남관계의 개선이 없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 평화번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남관계가 발전하여야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옹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을 격동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한 6.15시대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북남관계발전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있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도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6.15시대에 북남관계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데로 확고히 지향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

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분리의 장벽을 뚫고 삼천리강토를 하나로 잇는 통일대통로가 뻗어나가고 북과 남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 각계층 민간단체들사이의 다방면적인 래왕과 접촉, 교류를 통하여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고 전진시켰다. 평화국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적발전을 위해 북남쌍방무력이 참여하게 대처되어있고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선지역인 군사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도 통째로 내주는 아량있는 조치도 취하였다. 동족사이 에 불신과 적대의 감정만을 증폭시키고 군사적긴장조제로 이어지는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심리전과 비방중상도 6.15시대의 전진과 함께 사라졌다.

6.15시대에 북남사이에는 일시적인 우여곡절은 있었어도 전쟁의 우려나 공포는 없었다. 그것은 북남관계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따라 건전한 발전을 이룩해나갔기때문이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침략적인 외세가 조선반도에 전쟁불구름을 인위적으로 몰아와도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쳐 물리치고 삼천리가 들썩하게 《조국통일》을 웨친 우리 겨레이다.

이러한 격동의 6.15시대에 북남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러 군사적충돌까지 일어나고 오늘과 같은 최대의 전쟁위험까지 몰아오게 만든 《리명박근혜정권》의 근 10년간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이 과연 무엇에 의하여 지켜지고 그것을 파괴하는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지금 미국은 정의의 핵을 쥐고 침략의 핵, 폭력의 핵을 짓누르고있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굴복시키고 무너뜨려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지어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달성을 위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을 지르는것도 서슴지 않으려 하고있다. 이미 미국의 고위계층들속에서는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 《군사적선력》 등 호전적인 폭언들이 련속 울려나왔으며 항공포함 《칼빈슨》 호와 핵잠수함을 비롯한 침략무력들이 남조선과 주변해역에서 북침선제타격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친미공조과 동족대결행위로 현재의 전쟁위기를 키운 박근혜반역 《정권》이 연장된다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더욱 고조되게 되고 나중에는 전쟁이 터지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 땅의 주인은 조선민족이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는 힘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투쟁에 있다. 남조선에서 전쟁을 불러오는 동족대결정책을 끝장내고 북남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쓰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도 절실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조선의 군대는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린다

최근 TV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중합동타격시위를 담은 기록영화가 련일 방영되어 사회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무적필승의 백두산강군의 위력을 과시하며 수km의 해안가에 준비하게 되어선 300여문의 대구경자행포들, 《적》함선들에 대한 잠수함과 비행기들의 화력타격에 이어 수백문의 포들에서 일제히 뿜어대는 멸적의 불출기들, 과연 그 무서운 불의 세례에서 살아남을 적이 있겠는가.

보는 사람마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고 최후승리의 신심을 더욱 억척같이 새기게 해준 충격과 감동의 군중합동타격시위였다.

건군사에 특기할 이날의 군중합동타격시위에서 더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수백문의 대구경자행포들마다에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와 조선로동당기였다. 그 기발들이 펄펄 휘날리는 대구경자행포들앞을 지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포병들을 비롯한 군인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었다.

붉은기발을 휘날리며 진행된 이날의 군중합동타격시위는 조선의 군대는 다름아닌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사명으로 하는 최고령도자의 군대이며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제도를 어찌보려고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머리에 가차없는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말 인민군대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계에는 나라가 많고 군대들도 많지만 공화국의 군대처럼 자기 령도자와 운명의 피줄을 잇고 천만이 총폭탄이 되어

령도자를 결사옹위하고있는 그렇듯 성스럽고 위대한 군대는 없다.

공화국의 군대는 단지 핵무력으로만 강대했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군인들의 정신력이며 그 정신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것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려는 불타는 각오와 신념과 의지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인민군의 이 정신적기질은 비단 어제오늘에 형성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찌기 항일의 성스러운 전장에서 뿌리가 내리고 인민군대의 전력사를 통해 강화되어온 전통적인 기질이다.

당시 항일투사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 계시여 조선해방의 성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믿음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태양이신

그이를 한목숨 다바쳐 결사옹위하였다. 사령부의 안령을 위해 날아오는 적탄도 한몸으로 막은 대원도 있고 자기의 혀도 서슴없이 끊은 투사도 있었다. 특히 오중홍7련대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사령부로 가장하고 일제의 방대한 토벌무력을 자기들에게로 유인하여 끌고다님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지켜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은 미국이 일으킨 3년간의 가벌처절하였던 전쟁시기와 전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영웅한 인민군용사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결사옹위의 구호를 웨치며 불뿜는 적의 화점을 가슴으로 막았고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속에 뛰어들면서 김일성장군님의 품, 조국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전후

안팎의 원수들의 책동으로 것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인민군장병들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비롯한 수령칭송의 노래들을 창작하고 부르며 김일성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시련에 찻던 1990년대에 이어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인민군대의 변함없는 투쟁정신으로 승화되어왔다. 인민군대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부를 목숨바쳐 보위한 오중홍7련대가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오중홍7련대 칭호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전군이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대로로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 혁명의 수뇌부의 안령을 위해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한 길영조영웅비행사와 온몸을 태우면서도 불길속에서 수령칭송

의 구호나무들을 지켜낸 무재봉의 17명 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공화국군대의 수령결사옹위의 정신력은 최대로 앙양되어 있다. 최전연과 동서해안, 북부국경지대를 포함하여 온 나라 도처의 군부대들과 인민군 초소들에는 최고사령관기가 높이 휘날리고 군인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김정은장군 목숨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노래는 강산을 진감하고있다. 얼마전 태양절을 경축하여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열병식에서도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세월의 끝까지 혁명의 총대를 높이 들고 그이와 운명을 같이해갈 불

타는 맹세와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모진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최고령도자의 군대, 조선의 군대의 본태와 사명은 추호도 변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감히 《수뇌부제거》, 《평양타격》을 운운하며 무모한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정세는 엄혹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지만 령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펼치고 수소탄을 비롯한 최강의 억제력을 틀어쥔 세계에 유일무이한 강군이 있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의 려명은 밝아오고 있다.

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은 지난 4월 2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든 붉은기를 자그마한 변색도 없이 높이 들고 장구한 전 로정을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온 혁명군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이 땅우에 최후승리의 새 아침이 찬연히 밝아오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수령결사옹위를 신념으로, 최대의 사명으로 간직할 군대,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애국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공화국군대의 위력은 몇백몇천발의 수소탄보다도 더 위력한것이다. 사상의 강군, 핵강군인 공화국의 군대를 당할자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고성호



지난해에 있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 민족자주위업수행에 새로운 전환의 리정표를 세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자주위업을 향도하여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었다.

지난 1년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총폭발되어 공화국의 불패의 국력이 더욱 강화된 긍지높은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대회결정판철에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과 전대미문의 초강도제재압살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는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진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으시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게 하시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최종관문을 통과한 핵탄두폭발시험에서의 성공, 전략잠수

신적인 령도는 공화국의 군력강화에서 다계단으로 변이 일어나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을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지역인민들에게 불과 60여일만에 새집들이의 경사와 기쁨을 안겨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보여주는 축도였다. 그이께서 받기하시고 건설전반을 지도하시여 완공된 려명거리의 회한한 모습은 적대세력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폭풍쳐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과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사회주의조선의 문명의 높이를 과시한 기적중의 기적으로 되는것이다.

지난 1년간의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나날들을 되새겨 보면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언제나 과학이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최후승리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진리를 가슴뿌듯이 체득하게 되었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불가능을 모르는 자강의 억센 힘,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힘, 튼튼한 경제군사적 잠재력이 있어 공화국은 머지않아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강성번영의 려명을 안아오는 탁월한 령도

함 란도탄수중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서 성공,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이상분출시험에서의 성공 등 국방력강화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은 공화국을 최강의 핵억제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한 거대한 성과이다.

몸소 시험발사현장까지 찾으시여 핵무기와 핵공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

김정수평양제사공장, 고산파수종합농장, 룡악산비누공장, 평양곡산공장, 귀성제염소, 류경안과종합병원, 보진산소공장,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도록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월을 주름잡는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 놀라운 경제장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난해 함북도 북부피해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정초 어느날이었다. 애국렬사릉에서는 항일혁명렬사 고대봉 생일 100돐추모모임이 있었다.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고인에 대한 깊은 추억과 함께 세월을 이어 베풀어지는 절세위인의 두터운 은총과 고결한 의리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고대봉렬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이다. 그는 일제와 싸우던중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언도받고 10년나마 옥중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조국해방과 함께 인생의 새봄을 맞이한 그는 위대한 주석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의 나날로부터 년로한 몸으로 손에서 일을 놓을 때까지 애국사업에 심신을 다 바치었다.

혹독한 옥중생활로 폐인이나 다름없던 그가 락을 누리고 사후에는 애국렬사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덕망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의 건강관리와 치료, 보양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 려사는 90고개가 넘도록 건강장수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오래고 어느덧 100번째로 되는 생일날이 왔다. 고인을 추모하여 유가족들과 친지들은 조용히 제를 지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무렵 그들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려사의 생일에 즈음하여 추모식을 하도록 하시고 친히 화환도 보내주시었던것이다.

그때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 서거 100일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마음속상복을 입고있던 때였다.

그러나 가슴아픈 대국상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덕망속에 삶을 누리며 나라와 민족을 애생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간 려사에게 두터운 정과 의리를 베푸신것이었다.

본사기자

숭고한 의리는 세월을 이어

썩섬의 봄날에 꽃핀 민족대단결의 화원

화창한 봄이다. 해마다 온갖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봄이 오면 그윽한 꽃향기가 함빡 넘쳐나는 썩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도 그칠새 없다.

유정하게 흐르는 맑고 푸른 대동강

승고한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펼치시며

갑회도 새로운 주제37(1948)년 5월 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썩섬에서 역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했던 남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뜻깊은 협의회를 마련하시었다.

유구한 역사의 종결자인양 거연히 서있는 아름답드리브나무의 그늘 밑에 퍼놓은 민족고유의 정서를 자아내는 돛자리우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시었다.

태양의 환하신 미소를 담으시고 좌중을 둘러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련석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과 공동성명에 반영된 구국강령실현을 위해 남조선에 돌아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라개해나갈 것인지 의논해보자고 하시며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백두산발을 주름잡으시며 《동방의 맹주》라고 허세를 부리던 삼도왜적을 취락파락하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사변을 안아오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둘러앉은 남조선대표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지없었지만 좀처럼 어려움과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남조선대표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일성빨찌산이야 왜놈들이 무서워했지 한민족, 한동포들이야 왜 어렵겠는가고 하시며 우리 더운데 웃웃을 벗고 담배도 피우면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손수 대표들에게 담배도 권하시고 불도 붙여주시었다.

한없이 소탈하시고 겸허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인품에 끌려 남조선대표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풀려 수령님 가까이로 서로 다가갔으며 정을 나누었으며 그리하여 한가정파도 같은 단란한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김구, 김규식 등 남조선대표들의 소망과 의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알고싶어 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앞으로 미제와 리승만일당의 《단선단정》과 미군의 영구강점기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활동방향과 대책들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정세의 흐름을 환히 꿰뚫어보시면서 뚜렷한 방략과 묘술을 거침없이 펼쳐가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남조선대표들은 탄성을 올리었다.

봄날의 따스한 해별속에 달아오른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로 이어져 합의

물과 더불어 질어가는 신록으로 풍치 수려해지는 썩섬.

예로부터 썩이 많고 썩향기에 묻혀 있다고 하여 썩섬으로 불리운 이 섬이 69년전 5월이 있어 자연의 향취만이 아닌 민족대단결의 성지로 길이 빛나고있다.

에 도달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국통일대책에 대하여 명백히 강조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주요한 결론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기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남북조선 전지역에서 미군철수투쟁을 견결히 벌릴데 대한 문제, 망국적인 《단선단정》책동에 대처하여 북조선에서는 직접선거로, 남조선에서는 비합법적인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전조선적인 최고립법기관과 중앙정부를 세출데 대한 문제 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남조선대표들은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해방된 조국앞에 드리운 민족분렬의 어두운 그늘을 밀어내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사리정연하게 밝혀주시는 천출유인의 응지와 천재적 지략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주의주장, 리해관계에 앞서 민족앞에 다쳐온 분렬의 위기를 주동적으로 라개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구국통일의 기치밑에 합작단결해야 한다는 민족대단합의 강령을 받아안은 남조선대표들의 가슴속에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의 정이 세차게 끓어 번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주의자들이 품고있는 민족적량심과 통일구국, 반미구국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과 합작단결하는것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승고한 의무로, 한피줄을

몸소 차려주신 동포애넘친 오찬

협 의 회 를 마 치 신 위 대 한 수령님께서 우리 앉아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시원한 강가에 나가서 휴식도 하고 장기도 들시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러자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이 저저마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강가로 나가고 흥명회, 조소양 등은 원두막에 올라 장기관을 마주하고 흥에 겨워 장기를 두었다.

강변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웃을 벗고 강물에 뛰어드시자 김구, 김규식은 너무도 놀라 아직 강물이 찬데 위험하다고 걱정스러워하며 말리기까지 하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는 산에서 싸우면서 추위를 이겨내는 힘을 키웠고 하시며 얼음물에도 뛰어들고 설한풍이 불아치

라고난 조선사람으로서의 고귀한 의리로 여기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잡을것이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었다.

협의회참가자들이 모두 막혔던 물막이 터져 용용히 굽이치는 거세찬 대하를 보는듯 하였고 앞을 가리켰던 비운이 산산이 흩어져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심정이었다.

모든것이 명백해졌고 신심과 용기도 백배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승고한 민족애와 헤아릴수 없이 드넓은 도량, 만민을 뜨겁게 품어안는 포용력이 응축된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받아안으며 남조선의 인사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과 편견, 오해에 사로잡혀 살아온 지난날을 깊이 후회하면서 련공합작, 련북통일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미구국, 련공애국투쟁에 나선 그들의 신변문제까지 걱정해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조선에 나가면 미제와 그 주구들로부터 더욱 삼엄한 감시와 박해를 받게 될것이며 회유기만과 중상비방, 협박공갈 지어는 테로까지 당할수 있으므로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지략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말씀에 깊이 감동된 김구는 맹약의 심정을 정중히 아뢰이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편협하고 응졸했던 이 늙은것들을 그처럼 믿어주시고 신변안전까지 걱정해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죽어 진도된들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놈들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 해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굴함없이 싸워 기어이 련공합작을 이룩하겠습니다.》

김구의 말에 김규식, 조소양, 최동우 등도 한목소리로 찬동을 표시 하었다.

는 산야에서 눈을 이불삼고 살다보니 이 계절에는 미역감기가 알맞춤한 때이라고, 그리고 나야 젊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아직은 랭기가 서려있는 대동강에서 숨없이 뛰어드시여 강물을 헤가르며 기운차게 나아가시는 백두산장군의 모습을 경탄어린 눈길로 이윽도록 바라보며 김구는 김규식에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였다.

《저 젊은이 넘치는 기상을 보시오, 우리 민족은 행운을 받아안았소. 병약했던 민족이 혈기에 넘치는 강대민족으로 되였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민족이 되었던 말이요. 우리는 늙고 쓸모없이 되였어. 우리가 헛살았거든...》

원두막에서 장훈, 명훈 하며 열을

올리던 조소양도 이 광경을 보고 무릎을 치며 《참으로 영명하신분이시오. 아직 립하전의 찬 강물을 헤가르시는 장군님의 저렇듯 왕성한 정력과 슬기를 보니 반드시 만남을 헤치고 통일천하를 이룩하실거요. 참말로 김일성장군님은 남북조선 온 민족을 거느리실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영을 마치고 수행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시었다.

물고기를 잡는족족 가마에 넣어 푸짐한 어족을 췌었다.

이윽고 일행은 버드나무그늘밑에 차린 음식들앞에 빙 둘러앉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축배잔을 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대동강의 이름난 물고기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오늘 섬에 다 음식을 차려놓았으니 사양말고 많이 들어가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떠나가면 어려운 일들을 벌려야 하겠는데 통일대업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한다고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옆에 앉아있던 김구, 김규식이 잔을 들어올리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축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오찬에 참가하여 흥분해있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어족과 송어회도 권하시면서 이렇게 강변에 둘러앉아 어족을 췌어먹는 맛이 별맛이라고 하시었다.

너무도 허물없이 따뜻이 대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넘친 사랑과

썩섬은 길이 전 하 리

썩섬협의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출발을 선언한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회합이였다.

이날 북과 남의 대표들은 절세의 위인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합의 철리에 심취되고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에 들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나누면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국의 한길에 자신들을 다 바칠 각오를 다지였다.

돌이켜보면 조국광복회를 창건한 동강의 5월은 조국해방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시원이 마련된 날이라면 썩섬의 봄날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화원이 펼쳐진 역사의 날이였다.

이날이 있어 우리 겨레는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분렬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며 통일의 그날을 위해 거족적인 투쟁의 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어도 민족의 성지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썩섬에서 진행된 남조선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과의 협의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애국경륜과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참으로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의

욕친의 정에 남조선대표들모두가 목이 메여올라 눈을 습벅이며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지난날 거처민 이역땅에서 식민지 민족이라고 천시를 받으면서 막돌처럼 뒹굴고 눈치밥을 먹으며 전전공공할 때는 물론 남조선에 돌아와서도 미제가 주인행세를 하는 세상이다보니 언제 한번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적이 있었던가.

이역땅이나 남조선에서 그들을 초청하는 그 무슨 《연회》요 뭐요 하는데 마치못해 기본적인 있었지만 거기에는 민족의 열이 없었고 피가 통하지 않았으며 진정이 흐르지 않았다.

더우기 반공에 눈이 멀어 한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인생말년에 이르러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민족을 알게 되고 련공의 첫걸음을 내디딘 민족주의자들로서는 은정넘치는 오찬상앞에서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수가 없었다.

김규식은 자기 한생에 이처럼 마음 즐겁게 들놀이도 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민족적향취가 깃든 음식을 들며 웅어리진 가슴을 풀어보기는 처음이라고 몹시 기뻐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거듭 올리였다.

김구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손수 잡으신 물고기로 쏙 죽은 난생처음으로 먹어보는 별음식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보았다.

참으로 뜻깊고 유쾌한 친편이었으며 온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를 모시고 진정을 터치며 통일의 순간을 누려본 잇을수 없는 오찬이였다.

최고 화신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는 하나의 조선,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길에 바쳐진 거룩한 한평생이였다.

얼어붙었던 초목들이 화창한 봄을 맞아 생기를 뿜으며 약동하는 썩섬의 모습은 통일을 넘원하는 겨레에게 류다른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민족대단결의 거목이 뿌리내린 썩섬은 오늘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태동하고있다.

잊지 못할 썩섬의 봄날과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인 6.15통일시대가 펼쳐졌고 오늘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도래하였다.

69년전의 그 봄날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온 겨레는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일불멸할 업적을 되새기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기어이 삼천리강토 위에 백두산통일대강국을 일떠세우 고야말것이다.

리금평



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힌 불멸의 고무적 기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렸던 때로부터 1년이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북과 남이 전면적합의에 기초한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보고에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여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는 높은 민족적사명감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로서 조국통일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통일대장이다. 그것은 또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이며 통일을 위한 투쟁에

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인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민족분렬의 70여년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렬과 망국의 길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전제를 마련해나가는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누구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렬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새로운 주체적통일로선에 관통되어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의 통일 원칙과 방도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민족공동의 대의이며 고귀한 전취물들이다. 이 애국애족의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면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종착점에 순조롭게 다가갈수 있지만 여기서 탈선하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분렬과 전쟁위험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어날수 없다.

진실로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엄연한 력사의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오야말것이다.

리복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27돐을 맞으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북과 남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 통일위원회 성원들과 조선금속 및 기계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운수 및 수산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광업 및 동력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평양시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별, 지역별직업동맹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에서 보내 온 연대사가 랑독되었다.

이어 북과 남의 로동자단체위원장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민족대회 북, 남, 해외측비위원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대회실현에서 북남로동자단체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활동방향이 토의되었다.

결성식에서는 북남로동자단체들사이에서 협의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었다.

또한 민족대단결력을 강화하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이며 완강한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만아들이며 자주통일의 기관차인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 북남선언리행과 전민족대회실현에 앞장설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서울에서도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의 주최하에 각계층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보낸 연대사가 랑독되었다.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의 결성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돐과 10.4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실현하려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활동을 더욱 추동하게 될것이다.

주제 106(2017)년 5월 1일 평양

전민족대회 남북로동자 단체 준비위원회 결성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지난해 12월 남과 북, 해외의 조선민족이 전민족대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것을 결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민족대회는 온 겨레가 다같이 합의한 약속이자 북남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이며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는 결의의 장이라고 강조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전민족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반도평화실현과 남북관계개선을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가 전주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만 2 105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실현과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하여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초보정신을 받아들여 악폐청산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

언, 10.4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들의 계승과 리행,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즉각재개, 《싸드》배지종단과 평화협정 체결, 《보안법》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마땅히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여야 할 세계

마져 《색갈론》에 편승하고있다고 선언문은 폭로하였다.

모든 정당들과 《대통령》선거후보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오늘 공화국의 핵무장해제를 노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공화국이 《핵을 포기해야만 살수 있다》느니, 《북의 병진로선은 실패할수밖에 없다》느니 뉘니 하면서 군사적위협이 도수를 높이는 한편 전대미문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공화국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짓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이 제재와 압박, 군사적위협에 굴복하여 중당에는 핵을 포기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천진관망한 생각이다.

자위의 핵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병진로선이며 이 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되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미국의 가중되는 침략위협에 맞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하고있는 공화국에서 지극히 현명하고 정당한 전략적로선이다.

미국은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이때까지 어느 한 시도 천만부당한 대조선적대

시압살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때가 없다. 세기를 이어 제재와 압살의 광풍을 더욱 거세게 몰아온 미국이다. 이런 속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건설에도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최상의 방도는 자위적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길에 있었다.

이렇게 채택된 새로운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 백승의 로선인가 하는것은 지나온 수년간의 현실을 통해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공화국은 새로운 병진로선에 의하여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수수탄까지 보유하였으며 미국 본토를 비롯하여 침략의 본거지들이 있는 그어디에도 가닿을수 있는 각종 핵운반수단들도 충분히 갖춘 세계가 무시 못하는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트맹주국으로 솟구쳐올

랐다.

병진로선을 견지한 결과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놀라운 비약들이 이룩되고있다.

자기 힘으로 평화를 지키면서도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회한

이처럼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나아가면 강자가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것은 현실로 확증된 귀중한 진리이며 이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자리잡고있다. 이런 억념드높지 않는 신념으로 가슴마다에 새겨진 병진의 진리, 승리의 진리를 적대세력들이 비난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과연 버

릴수 있겠는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애국의 로선은 오늘의 엄혹한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더욱 절실한 항구적인 전략로선으로 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지금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북침전쟁연습수단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으로도 모자라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잠수함, 핵전략폭격기와 같은 핵타격수단들을 남조

선과 조선반도주변에 전개시켜 놓고 군사적선제타격, 전면전쟁도발을 감행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강위력한 군력이 무서워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르지 못하고있다.

만일 공화국에 핵억제력이 없고 군력이 약하다면 포악무도한 미국은 얼마전 수리야를

날강도적인 본성이다. 그리고 민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기에 자위의 핵을 절대로 놓지 않고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수치스러운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군사적모험과 핵위협에 매달리는 한 공화국의 핵무력은 날이 더욱 강화될수 밖에 없다.

공화국이 틀어쥔 정의의 핵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이다. 하기에 얼마전에도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핵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단호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병진로선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승리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항구적인 전략적로선

이렇게 채택된 새로운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 백승의 로선인가 하는것은 지나온 수년간의 현실을 통해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한 창조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자강력의 기치밑에 공장, 기업소들이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어디서나 생산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으며 질 좋은 국산품들이 상점과 백화점을 채우며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려명거리의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제재책동도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주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지금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북침전쟁연습수단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으로도 모자라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잠수함, 핵전략폭격기와 같은 핵타격수단들을 남조

대상으로 감행한것처럼 공화국에 서슴없이 군사적타격을 가하고 전면전쟁도 도발하게 될것이다.

현실은 병진로선을 채택하고 자위의 핵무력을 부단히 강화해온 공화국의 조치가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 조치였는가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북침선제공격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침략적이며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우리의 핵보유를 걸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감행하는 반공화국 제재와 군사적압박소동이 한계를 넘어서고 조선반도정세가 각일각 첨예해지고있는데 대한 내외의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미국이 요란하게 불어대는 위협공갈과 전쟁평음에 심장이 졸아들어서인지 덩치큰 이웃나라들에서 사리와 분별을 잃은 언사들이 련일 터져나와 현 사태를 더욱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중국당과 정부의 공식립장을 대변하는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지면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는 글들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최근에도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는 여러편의 론평에서 우리의 핵보유가 저들의 국가적리익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면서 조중관계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장단에 놀아대는 비렬한 행위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해나섰다.

론평들에서는 조선이 중국국경으로부터 100km도 안되는 곳에서 핵시험을 하면서 《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다.》느니, 우리가 동북아시아 정세를 자극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한다느니 하고 떠들던 끝에 우리의 핵보유를 반대하는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리익이며 저들에게 위협을 가져다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지어는 조중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우리가 중국과의 군사적대립을 바라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고립과 또 다른 국가안보의 길》사이에서, 조중친선과 핵포기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극히 도전적인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 최고리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친선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선량한 이웃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위

협이다. 우리는 오늘에 와서 내외가 공인하는 핵보유의 불가피성과 순탄치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구애여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의 핵문제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 못지 않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천만부당한 구실을 들어 퍼로써 개척되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발전되어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수 없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나오는 동북3성의 《핵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과학적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억지주장이다.

5차에 걸친 우리의 핵시험은 철저한 안전담보하에 진행되었으며 핵시험장가까이에 살고있는 우리 주민들도 핵시험이후 아무런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이 핵물질포집장비를 갖춘 최첨단정보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핵시험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였지만 크세논을 비롯한 극히 미세한 량의 방사성물질들도 포집하지 못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중국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외곡하고 동북3성의 그 무슨 《피해》를 떠드는것은 우리의 핵고도화를 달가와하지 않는 중국의 속내만을 그대로 드러내보일뿐이다.

중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걸핏하면 거론하는 그 무슨 《국가적리익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

상대의 신의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리익을 거듭 침해당해온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라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허물어보겠다고 극악무도하게 날뛰는 남조선 괴뢰들과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순수한 경제교류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 군사적관계에까지 심화시키면서 동북3성은 물론 중국전역을 반공화국전초기지로 전략시진 죄과를 무었으로 변명할수 있겠는가. 지금 압록강, 두만강유역을 비롯한 조중국경

연선에서 종교인, 기업가의 탈을 쓴 형형색색의 괴뢰국정원 요원들과 크나불들이 암약하면서 매일과 같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과 음모, 랍치와 테로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중국은 옹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어 만민의 지란속에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감옥구신이 되어가고있는 박근혜와 같은 인간쓰레기를 천안문광장 주석단에까지 올려세우고 세상이 보란듯이 입맞추며 온갖 비렬한 짓을 서슴지 않아온데 대해서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중국의 일부 론자들이 우리의 핵보유가 동북아시아정세를 긴장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꾀문을 늘어놓고있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양기배전략은 우리가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되었으며 오래전부터 그 기본목표는 다름아닌 중국이었다. 오히려 70여년이나 반미대결전의 제1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미국의 침략적기도를 좌절시키고 중국대륙의 평화와 안전수호에 기여한것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부러 해야 옹당할것이다.

조중친선의 전통적관계가 당시 각국의 리익에 부합되었기때문이라고 감히 매도하는 무지몽매한 중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력사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입을 놀려도 놀려야 한다.

조선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밀접히 련관된 이웃나라일뿐아니라 선대수령들께서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붉은 퍼로 기발을 물들이며 함께 친선의 정을 쌓아오신 류다 른 전우의 나라, 형제의 나라이다.

항일대전과 항미전쟁은 조중현대사에 다같이 지울수 없는 영웅적사사로 아로새겨져있으며 조선과 중국의 아들딸들은 그 가렬치절한 전장에서 국적을 초월한 사실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열을 두러이 하였다.

공파사나을 20세기 소용돌이치는 세계정치의 한복판에서도 두 나라

는 사회주의의 기치를 수호하고 자주권을 지키는데서 뜻과 힘을 합쳐왔다.

조선의 리익만을 위해 우리가 중국혁명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당과 정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성심성의로 지원한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중간에 있었던 과거의 비화들을 구애여 다시 공개하지 않자요 조금이라도 상각과 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고의적으로 덮어두고 파렴치하게도 미국이 웨치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라는것을 그대로 따라우며 반공화국적대세력과 한편이 되어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대고 잔혹한 제재놀음에 매달리는것은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송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 아닐수 없다.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것이 아니라 중국이 략욕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있다.

우리 두 나라사이의 《붉은 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리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상징이며 최고리익이다.

우리는 세기와 년대를 이어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존엄을 빼앗고 짓밟으려는 세계최대의 핵렬강인 미국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기 위해 핵을 보유했으며 그 자위적사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도높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개입까지도 불가사하다고 하는것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조선의 전략적리익은 물론 존엄과 생존권까지도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극히 오만한 대국주의적 론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누구이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핵보유로선을 절대로 변화시킬수도 핵보유도 없으며 조중친선이 아무리 소중한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

결할 우리가 아니라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부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수 없으며 제재의 끈을 조금만 조이면 손들고 관계복원을 구걸하리라고 기대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계산이 아닐수 없다. 우리 생존의 원천과 토대는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자원이고 백철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쉬임없이 분출시키는 무궁무진한 자강력이다.

이미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라는것을 이 시각 구애여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유라시아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있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중요성과 전략적가치는 날로 상승하고있으며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 있다.

중국은 더이상 무모하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옹바른 전략적선택을 해야 한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를 막아보겠다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제재결의》 채택에 손을 들어주고 동북3성의 경제적피해까지 감수해가며 우리에게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얻은것이 과연 무엇인가.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미국에 양보하고 아무렇지만 남조선에는 중국을 겨냥한 비수인 《싸드》가 한밤중에 기습배치되어 참으로 《어리석은 거인》을 비웃고있다.

미국의 힘에 놀리워 제 주권도 세우지 못하고 목적인 리익에 눈이 어두워 수십년간 이어온 형제의 우정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 결국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사방에서 화가 들이닥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오늘의 무모한 망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김 철

《보통》의 무모한 망동이 남조선의 핵보유를 위협할 수 없다

남조선의 친미굴종세력은 찍하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왔다. 마치 미국과의 《동맹》을 남조선의 생명줄로 여기며 안에서도 《동맹》, 밖에 나가서도 《동맹》을 칠새없이 주절거려왔다.

그렇게 운명의 하내비처럼 섬겨오며 살려달라고 바지가랭이를 붙잡아온 미국, 그 《동맹국》의 진짜모습은 과연 어떤것인가.

최근 온 남녘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는 《싸드》배치문제 하나만 놓고서도 미국의 정체를 잘 알수 있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한것은 그 무슨 남조선의 《안보》를 위한것이 아니었다. 《싸드》는 남조선강점미군을 보호하기 위한것이고 미국령토에 날아가게 될 미세일을 《요격》하기 위한것이다. 남조선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있는 서울, 경기도지역은 해당조 《싸드》의 《보호》밖에 있다.

그런데도 철면피한 미국은 남조선의 《안보》를 지켜준다면 《싸드》배치를 강요하였다.

그로 하여 남조선과 주변나라들사이에 심한 마찰이 일어나고 경제보복 등으로 하여 남조선의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가 들춰지고있

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싸드》배치를 강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것은 남이 죽던 살던 저만 살면 그만이라는 미국의 본성의 발로였다.

침략과 살인을 체질로 하고있는 미국은 애당초 남의 《안보》에 하등의 관심도 없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전조선병도를 타고있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서, 더 많은 군사장비들을 팔아먹을 시장으로서만 필요할뿐이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동맹》이라는 화려한 보자기에 눈이 멀어 미국은 운명의 구세주처럼 섬겨왔으니 남조선이 가련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미국이 저들에게 위협으로 되는 공화국의 핵무기를 어찌보겠다면서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최악의 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선제타격이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쟁발발이라는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조선이 불바다가 되고 재가루가 되는 판계 없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쟁위험을 계속 고조시켜오고있다. 안보를 지켜준다는 미국에 의

해 남조선에서는 《전쟁위기》설이 대두했다. 미국의 《싸드》배치도 남조선인민들을 방해막이로, 희생물로 삼아 저들의 동북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미국이 남조선의 《주권》을 존중해줄 리 만무하다. 《싸드》배치를 남조선의 《다음기》(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느니 뉘니하며 미를듯이 요설을 늘어놓던 미국이 지난 4월 26일 새벽에 도적고양이마냥 기습적으로 《싸드》를 성주의 롯데골프장에 배치한것도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렇게 《싸드》를 배치한 미국이 얼마전에는 또 《싸드》배치비용으로 10억US\$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박하고있으니 강도면 이보다 더한 강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싸드》배치과정은 남조선에 있어서 미국은 《보호자》, 《동맹자》가 아니라 온갖 피해와 재난만을 들쑤우는 침략자, 뻔뻔스러운 강도이며 식민지종주국일따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 미국에 계속 운명을 맡기고 살겠다고 말버둥질해왔자 제 운명을 제 스스로 망치는 치욕의 결과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

리 어금

대미굴종의 참혹한 후과

최근 미국은 《싸드》가 남조선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10억US\$에 달하는 비용을 남조선이 지불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남조선을 벌등지 수신것처럼 만들어놓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싸드》를 성주골프장에 기습배치한데 이어 막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내리먹이는데 대해 각계의 분노가 매일같이 터져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당국의 치밀리는 대미굴종행위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선 한갓 무용지물에 불과한 《싸드》를 배치하는것때문에 남조선은 주변나라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미국에 《싸드》배치지로 골프장을 내어준 남조선의 롯데그룹은 제

고 인민들의 반미감정도 날로 고조되고있다.

이번에 《싸드》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2중3중의 봉변은 예고된것이였다.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당국의 치밀리는 대미굴종행위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선 한갓 무용지물에 불과한 《싸드》를 배치하는것때문에 남조선은 주변나라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미국에 《싸드》배치지로 골프장을 내어준 남조선의 롯데그룹은 제

재의 초점이 되어 련일 아우성을 치고있다.

《싸드》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더 큰 안보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조선반도전쟁위험이 더욱 높아진것은 두말할것 없고 레이더반경이 수천km에 달하는 《싸드》때문에 남조선은 주변나라들의 미사일타격과녀이 되게 되었다.

지금 주변나라들은 《싸드》가 자기들의 《전략적안정을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하면서 《신형장비를 리용한 실전대용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벌릴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군사적충돌시 《싸드》가 배치된 남조선이 주변나라들의 1차적인 군사적

타격대상이 된다는것을 천명한것이나 같다. 그러한 재난의 《싸드》를 끌어들이것만으로도 남녘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는데 이제 막대한 비용까지 미국에 지불해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결국 《싸드》 하나때문에 남조선이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게 된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뿔주고 뿔맞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조선을 그러한 처참한 신세로 만들어놓은것이 바로 친미굴종에 여념이 없는 부패보수세력들이다.

엄청난 재량단지를 불법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도 그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수천명의 경찰들을 내몰아 탄압하고 《싸드》를 보호해준데 대해 남조선 각계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이고 경찰인가?》, 《이게 나라냐?》 하며 분노와 개탄을 터뜨린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 친미보수세력들은 《싸드》와 함께 당장 남조선에서 내쫓아야 할 사악한 무리들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현은경



초보국민의견의 판과 대법관 — 홍준표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후보라는 자가 마치 《당선자》가 된 듯이 희뜩희뜩 웃고 세인을 웃기었다고 한다. 벌써부터 그 무슨 《대통령 취임식》소리를 하며 《당선되면 취임식을 광화문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정정한다.》느니, 《(국정)안정이 된 후에 광화문에서 서민 100만명을 모시고 취임식을 하겠다.》느니 했다는 것이다. 미꾸라지가 뽕뽕을 낀다고 해도 이보다 더 황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자격마저 없는 홍준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듯이 너스레를 떨고 있으니 보수러발에 사람이 없지는 없는 모양이다. 일찌기 대학시절에 성폭력범죄에 가담한 저질 인간, 성완중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중에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 전 《대통령》을 《퇴물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두벌죽음시킨 무뢰한이 바로

홍준표다. 《막말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있는 홍준표가 최근에 뱉어놓은 망발들만 놓고보아도 그는 력사의 오물장에 몇 번이고 버려졌어야 할 쓰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29일 홍준표는 인터넷에 《부모님상도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하는데 아직도 《세월》호를 《대선》에 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3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혈육의 시신을 찾지 못한 《세월》호유가족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고 진상규명과 사실인자처별이 없는 《세월》호참사를 유아무야하려는 박근혜식사고와 오만이 아닐 수 없다. 4월 30일에는 여론조사에서 자기의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고 《도둑놈 XX들》, 《지랄한다.》라고 씩씩하고 지어 《집권하면 응징하겠다.》, 《없애버리겠다.》고 독기를 내뽐었다고 한다. 또 《종편이 하루종일 편파방송을 하고있다. (대통령)이 되면 종편을 확 줄이겠다.》고 앙양말락한 사실이 있다. 박근혜가 문화계의 《검은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더니 홍준표는 언론계의 《검은 명단》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언론계만이 아니고 《전교조가 친북좌파리념을 교육하고있다.》면서 《집권하면 전교조를 손보겠다.》고 한 것도, 《초보

국민이라는 것은 광우병때 처럼 전교조, 민주로총, 좌파단체 등이 주동이 되어 선동한 민중혁명》이라고 뱉은 것도 불과 며칠 전이다.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들쭉이던 《색갈론》, 《종북론》을 시민, 사회단체들로 전파시키고있는 것이다. 《5월 9일은 친북좌파(정권)과 보수우파(정권)을 선택하는 결전의 날이다.》, 《이번 《대선》은 종북좌파(정권)이나, 보수우파(정권)이나를 가르는 체제대결이다.》라고 부르짖는 홍준표가 남조선인민들의 새 정치, 새 생활의 염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더우기 《보수우파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어 북을 제압하겠다.》는 홍준표가 북남관계를 전쟁태세로 몰아간 박근혜를 통가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나타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홍준표는 제2의 박근혜가 분명하다. 이런 《바지입은 박근혜》에게 표를 준다면 천하악녀때문에 수십년전의 과거가 돌아간 남조선정치가 더 망가지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가 사라진다.》, 《홍준표를 찍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회세의 악녀 박근혜를 내

세운 보수, 박근혜와 다를바 없는 홍준표를 후보로 내세운 보수, 역시 보수의 터밭에선 잡초나 독초밖에 자랄수 없는 모양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선거는 초보국민에 의해 타오른 《초보선거》이다. 그런데 초보국민이 잘 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회세의 역적 박근혜를 살려내겠다고 악을 써대는 홍준표야말로 바지입은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감옥안에 갇혀서 발악하고 《바지입은 박근혜》는 거리바닥을 돌아치며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날치고있으니 한바리에 실어서 저승에 보내야 할 악귀들이 아닐 수 없다. 부패보수정거자들이 살아서 다시는 날치지 못하게 《초보대선》에서 단호히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남녘인민들의 웨침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판평 전쟁하겠다는 홍도개비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후보인 홍준표가 얼마전 TV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갈빈손〉호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문제 등을 토의하겠다.》고 떠들었다. 민심의 탄핵심판에 전면도전하면서 력사의 죄인인 박근혜를 공개적으로 비호두둔하고있는 쓸개빠진 홍준표가 《초보선거》인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늘어놓은 소리를 들어보면 더욱 역스러움을 금할수 없게 한다. 《갈빈손》호라는 것이 어떤 물건적인가. 현시기 미국이 몰아오려는 전쟁을 상징하는 침략함선이다. 미국은 수리아처럼 조선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갈빈손》호의 항로를 변경시켜 조 선반도해역으로 내몰았다. 이에 따라 남조선과 북핵문제 등을 토의하겠다.》고 떠들었다. 미국은 아직도 《갈빈손》호항공포합타격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전개시켜놓고 불의의 선제타격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 《갈빈손》호갑판우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은 리성을 잃은 미국상전과 함께 북침전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선이 친 자위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재난의 전쟁도 서슴지 않으려고 핵덤비는 미친 미국에게는 저들의 말이 어떤 덩어놓고 순종하고 다른 굴종의 화신이며 동족대결미치광이인 홍준표에게는 홍도개비가 딱 어울리는 것이다. 미국이 전쟁의 불을 지르지 말라고 백악관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쟁기운이 뿜어있는 《갈빈손》호를 찾아가겠다는 홍준표야말로 미쳐도 더럽게 미친 대결광신자, 호전분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런자들이 있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더 높아가고 남조선의 안보도 극도로 위협받고있는 것이다. 김응철

죽어도 그 병은 못 고친다

남조선의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박근혜당들의 운명도 심지가 다 타버린 초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미친개는 죽을 때까지 짖어댄다고 회세의 악녀때문에 박근혜와 똑같이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자들이 몰사직전까지도 악담을 불어대고있다. 지난 2일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은 마지막 《국무회의》라는데서 《북도발》설을 뇌까리며 《합동군사연습이 끝났지만 안보불안이 지속되므로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고아했다. 앞서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미국에 날아가 미일상전에게 《북핵, 미사일 폐기》와 《북도발시 징벌 기조견지》를 구걸했다. 제명을 다 산 정치승장들의 단말마적인 부르짖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이나 윤병세 같은 자들이 박근혜의 치마폭에 묻혀 한짓이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다 못해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며 미일상전의 사사구구로 불어 구정물이나 뱉어먹으며 남조선을 통째로 굴종의 수렁창에 빠지게 한 것뿐이다. 남조선에 전쟁의 시한탄과 같은 미국의 《짜드》를 끌어들이고 백년속적 일본의 반인륜범죄도 무마해준 것도 박근혜와 함께 이들이 저지른 용서 못할 반민족적 죄악이다. 이런 쓸개빠진 자들때문에 남조선은 외세의 끈오래기가 조종하는대로 동서남북으로 핵덤비는 꼭두각시로 되고 속곳까지 다 벗어주는 자주권없는 식민지가 되게 되었다.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적면모라도 있다면 운명의 순간에는 참회라도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끈 떨어진 갓신세가 될 자들

이 지금까지 저지른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죄악이 모자라 무덤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게거품을 물고 악담질이다. 황교안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늘어놓은 너드리는 《장례식장의 애절한 고별사》에 불과하고 친식환자처럼 발작하는 윤병세의 악담은 시도 때도 모르는 미친 병세의 발작중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민심과 력사의 심판을 받고 북방산으로 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저승길도 함께 가면 외롭지 않다더니 박근혜잔당들은 여겨운 황천길을 재촉하며 같이 가자고 꼭 같이 발광하는 모양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력사의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발악

최근 박근혜역도년과 보수패거리들이 력사의 심판을 모면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박근혜는 만천하에 드러난 제년의 만고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할 대신 고용변호사들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보수세력을 끌어모아 제년의 집주변에서 그 무슨 석방놀음이라는 것을 벌리려 하고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18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내대며 법원이 5월 2일로 정한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에 매달리고있다. 보수패거리들은 박근혜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뉘뉘며 년이 감옥에서 건강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병보석시켜야 한다는 거짓어론까지 내뉘리며 노족을 부리고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고용변호사들은 2일에 열린

준비재판에서도 역도년과 공범자들의 범죄에 대해 같은 가박을 붙이며 전부 부인해나섰다. 그러나 박근혜년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제집에 감주었던 거액의 자금이 발견된 것을 비롯하여 세인을 경악시키는 범죄의 진상들이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있다. 박근혜와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국정》통락의 공범자들은 아직도 머리를 쳐들고있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격분한 야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역도년의 추태를 두고 법적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간교한 술책, 제년의 재판이 《대통령》선거에 미칠 부정적영향을 막아보려는 보수패거리들과의 밀실야합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반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는 웅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와 그 공범자들을 처벌하고 사회에 남아있는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여 이 땅에 국민이 주인된 민주주의 새세상을 세우야 한다.》, 《4.19정신으로 싸워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반드시 안아오자.》고 하면서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 제년의 더러운 목숨부지를 위해 마지막순간까지 민심을 우롱하며 파렴치하게 늘어대는 박근혜년의 수작질은 특대형 《국정》통락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해나선 초보국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박근혜는 물론 극악한 공범세력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매장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역도년이 제아무리 오그랑수를 쓰며 발악해도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력사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언론보도에 의하면 통일부가 《북인권대화》를 위한 《씨나리오 및 대책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북인권증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조작해낸 통일부라는 것이 앞으로 《인권대화》모의판까지 펼쳐보려 하고있다. 남조선통일부가 박근혜역도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미화하고 북남관계파국을 몰아오고도 저들의 《치적》으로 광고하는 《통일백서》발간놀음을 벌려놓았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은 것이 이루어질수 없는 개꿈을 꾸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통일부가 아무리 《인권문제》나발을 지쫓게 불어대도 거기에 귀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통일부로 말하면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박근혜역도의 수족노릇을 해오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박근혜역도의 공범자,

특등하수인이다. 민심의 사형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역도와 함께 산송장으로 전략되어 비루먹은 개취꿈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 다름 아닌 남조선통일부이다. 《동족대결부》, 《법통부》의 추물들이 제 처지도 모르고 북남대화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추태이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안팎으로 규탄배격을 당하고 초상난 집신세가 되다니 이제 머리가 돈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황당무계한 《인권대화》라령을 어찌 늘어놓을수 있겠는가. 주제넘게 《인권대화》니 뭐니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인권》에 대해 말할 한쪽각의 체면과 자적조차 없는 인권유린범죄자들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바다속에 수장되는 수백명

판평 난파선우에서의 녀두리



의 어린 생명들을 차디차게 외면하고 탄질을 함으로써 온 남조선을 눈물의 바다, 분노의 초보바다로 만들었으며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농민을 몰대포로 쏘아죽이고 그의 시신까지 란도

남조선통일부가 북남대화력사상 있어본적 없는 그 무슨 《인권대화》판을 펴보려고 기도하는 것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대결국면을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놓으려는 더러운 홍심의 발로로서 공화국에 절대로 통할수 없다. 추악한 남조선통일부의 바보들은 가소로운 개꿈을 꾸지 말고 박근혜역도와 함께 지옥으로 갈 차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존엄높은 공화국의 체제를 감히 헐뜯으며 《인권》모략수동에 매여달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겠다는 것이 공화국의 립장이다. 남조선통일부들도 극악한 동족대결광박근혜의 너절한 손발이 되어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그 대가를 독특히 치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박근혜》가 《김정은》을 겁주었다

남조선에서 내외호 전세력들이 두달이상이나 광란적으로 벌려온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4월 30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침략의 《독수리》가 깃을 접었다고 하여 조선반도에 결코 평화가 깃든것은 아니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최근 미국은 남조선에 전략자산들을 련이어 끌어들이며 남조선호전세력들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조선동해에서 미해동력항공모함 《칼빈슨》 호라격단과 남조선군의 이지스구축함, 해상직승기 등을 동원하여 해상 연합타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있는가 하면 5월 1일에는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까지 남조선지역상공에 끌어들이며 공화국의 대상물을 가상한 핵폭탄투하훈련을 감행하며 전쟁광기를 부리었다.

한편 미국은 전쟁개시의 서막이라고 할수 있는 민간인소개를 위한 훈련을 6월에 실시할것을 계획하고 그에 대해 크게 광고하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일

명 《커레이저스 채널 2017》(용맹스러운 항로-2017)이라는 훈련은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하여 남조선에 거주하고있는 미국민간인(미군가족포함)들을 해외로 소개시키는 훈련이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훈련시기보다 두달이나 앞당겨 이 계획을 공개하고있다.

미국이 《칼빈슨》 호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며 전쟁광기를 부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민간인소개훈련을 벌려놓겠다고 발표한것은 저들이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을 도발할수 있다는것을 공공연히 광고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는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평화과피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침략세력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는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북침핵전쟁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호

을 엿보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고있다. 그만큼 그에 따른 마땅한 대응책도 다 준비해놓고 결전의 시각만 기다리고있는 공화국이다.

불을 즐기는 부나비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만사를 해결할수 있는 《합》의 상징물로 여기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와 같은것들을 휘두르면서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산중의 오산이 아닐수 없다.

침략의 무리들이 공화국을 어찌보겠다고 한발자국 한발자국 덤벼들수록 그것은 오히려 북의 핵준경안에 스스로 머리를 더 깊숙이 들이치는 자멸행위로 될뿐이다.

침략의 《독수리》는 남의 나라에서 마구 날칠수는 있지만 신성한 공화국의 명토에서는 결코 살아돌아갈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빈말을 모르해 심사숙고하고 전쟁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

대미추종으로 얻을것은 수치와 파멸

얼마전 미국의 새 행정부가 공화국을 고립압살해 보겠다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기조로 하는 대조선정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외가 평한것처럼 전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 내》정책과 별로 차이가 없는것이다. 오히려 미행정부가 지금까지 떠들어대던 《선제타격》과 같은 호전적인 표현들이 없이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여두고있다.》는 식으로 되어있어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위구심만을 자아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이 강경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을 대화에로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하면서 《북미관계가 완화국면으로 돌아설수 있다.》, 《다음기(정부)는 시급히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급제맞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트럼프행정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두고있다.》, 《대화협상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한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정부〉의 〈선 비핵화, 후 대화〉 정책기조와 본질상 같다.》, 《〈전략적인 내〉정책과 별로 차이가 없는것이다. 오히려 미행정부가 지금까지 떠들어대던 《선제타격》과 같은 호전적인 표현들이 없이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여두고있다.》는 식으로 되어있어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위구심만을 자아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이 강경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을 대화에로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하면서 《북미관계가 완화국면으로 돌아설수 있다.》, 《다음기(정부)는 시급히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급제맞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트럼프행정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두고있다.》, 《대화협상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한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정부〉의 〈선 비핵화, 후 대화〉 정책기조와 본질상 같다.》, 《〈전략적인 내〉정책과 별로 차이가 없는것이다. 오히려 미행정부가 지금까지 떠들어대던 《선제타격》과 같은 호전적인 표현들이 없이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여두고있다.》는 식으로 되어있어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위구심만을 자아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이 강경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을 대화에로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하면서 《북미관계가 완화국면으로 돌아설수 있다.》, 《다음기(정부)는 시급히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급제맞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트럼프행정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지 않았다. 그러나 그속에서 언제나 승리한것은 공화국이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백승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현실을 못 본체 하면서 외세의 힘을 빌어 어떻게 해서나 동족을 해쳐보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개꿈은 저 하늘의 무지개를 잡아보겠다는 가소로운것으로서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남조선내부에서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추종하다가 또 당하는 꼴이 되었다.》고 보수당국을 조소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긴밀한 대북공조》를 떠들면서 공화국을 어찌보겠다고 동네방네 돌아치다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된 남조선보수당국의 꼬락서니는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는것으로서 그것은 천 미시대, 대미추종이 가져다준 엉당한 귀결이다.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주구의 은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

미국을 등에 업고 잔명을 부지해오던 남조선보수당국이 최근 상전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태도와 배척을 당하고 허탈감에 빠져 갈팡질팡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10억US\$의 《싸드》 배치비용을 남조선이 부담해야 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다시 논의하거나 폐기해야 할 대상이라고 호통친것이다.

미국에서 《안보무임승차》를 운운하며 미군유지비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제나라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재협상을 주장해온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하자 상전의 눈박에 나지 않으려고 입에 침이 마를 사이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떠들며 상전에게 갖은 추파를 던지던 남조선보수당국이다.

그러던것이 졸지에 상전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고 쓰물벼락을 뒤집어 쓴 통개신세가 되었으니 그 말 못할 설움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결국 미국은 남조선을 《동맹국 우선순위》에 두고있다고 광고하며 제마음대로 주물러대다가 《미국우선주의》의 첫 희생양으로 삼았다.

미국은 아직도 남조선통치배들이 상전의 엉큼한 속심은 모르고 어리석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물덤벼물덤벼 하고 있는것이다.

일이 터지자 청와대안보실 실장 김관진, 외교부 장관 윤병세 등이 나서서 상전을 설득시켜보려 하였지만 미국이 자기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바람에 상전에게서 또다시 동냥바가지질 걷어채운 꼴이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관계가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가장 치욕스러운 주종관계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저들에게 유리할 때는 살이라도 베어줄것처럼 너스레를 떨다가도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맹정하게 등을 돌려대는것이 미국의 본성이다.

남조선은 《보호》한답시고 《우방》홍내를 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렇다. 미국은 애당초 남조선통치배들을 발뒤꿈치의 찍살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저들의 리속을 차리기 위해서라면 주구들따위를 차버리는것쯤에는 눈설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저들이 폐기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뉘친것은 남조선당국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친미사대에 환장한 보수 《정권》10년간 미국의 오만성은이처럼 극도에 달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이 《미국이 우리를 우롱하고있다.》, 《〈싸드〉를 기습반입하더니 비용까지 내라고 협박한다.》, 《굴욕적인 〈한국〉 외교의 현주소》, 《이게 동맹이냐.》고 분격을 터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속에서까지 《트럼프를 이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가 왕왕 터져나오는것은 그자체가 남조선 《정권》이 미국의 가장 가련

한 시너, 아무렇게나 주물러댈수 있는 철저한 식민지피정권이라는것을 자인한것으로 된다.

가소로운것은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는 아랑곳없이 상전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고 계속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은 제11차 《한미통합국방협력체》 회의 등 각종 모임에서 미국전략무기들의 정례적인 조선반도전개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압박조치》 시행과 《감내할수 없는 징벌적 조치》 등 반공화국압박과 위협의 도수를 높여보려고 놀아대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트맹주국으로 솟아오른 공화국의 위력앞에 전률한 매국역적들의 필사적발악이며 명줄이 끊어질 날이 멀지않은 회세의 대결병신짜들의 가소로운 추태에 불과하다.

남조선통치배들이 민심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미국과의 굴욕적인 《동맹》에 매여달릴수록 상전의 오만성과 강도적 요구는 더욱 로골화될것이며 그로 하여 차례질것은 식민지주구, 하수인의 치욕과 오명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미국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무능한 《정부》

남조선의 《한국일보》가 1일 《한미동맹만 믿고있다 뒤통수 맞은 무능한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미국대통령이 《싸드》 배치비용을 남조선이 부담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밝혔다. 뒤늦게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이를 두고 오로지 미국의 《동맹만 믿고 미국과의 《선의》를 기대해 왔던 《정권》 외교의 예

견된 참사라는 비난이 나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예측불가능한 미국대통령의 발언보다 《정부》의 안이함과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일본이 군국주의의 독버섯이 자란다

최근 일본이 군국주의의 독버섯이 자란다. 《애국심교육》이요, 《교육칙어》이요, 《교육칙어》를 교육현장에서 공식사용하도록 한것이다.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중학교들에서 총검술을 필수과목으로 배워주는가 하면 파쇼독재광 히틀러의 자서전이라는것까지 교재로 사용하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지금 일본교육계의 현실은 그야말로 칼을 차고 해외침략을 부르짖으며 소학교학생들에게까지 목검체를 쥐여주어 군사훈련에 내몰던 어제날의 군국주의 풍경을 련상케 하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물을 먹이기 위한 일본의 책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에서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감행하고있는 역사교과서의폭력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보편적실례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심히 외곡된 내용들로 일관된 역사교과서들이 뼈저게 검정통과되어 학교들에서 리용되고있다.

일본의 고등학교역사교과서들에는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사가 외곡서술되고 남의 나라 땅이 일본땅으로 빼앗아 올랐는가 하면 일본군성노예관련 내용은 대폭 삭제되고 있으며 일제의 침략죄행을 아시아인민들을 서방렬강으로부터 《해방》하

기 위한것으로 찬미되고 있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거짓말들로 엮어진 교과서들을 가지고 일본당국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역사관을 주입시키면서 그들의 사고를 부식시키고있다. 오늘 일본의 새 세대들속에서는 《야마도민족의 우월감》과 민족배타주의가 머리를 쳐들고있으며 과거 일제의 만행사실에 대해서는 《해방자의 과실》,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식되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일본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일본의 적을 복수해야 한다.》는 대결사상이 농후해지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침략으로 거침없이 내달고있는 일본의 오늘을 명백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비호조장밑에 일본에서 국수주의교육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새 세대들의 머리속에서 군국주의독버섯이 자라고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앞으로 해외침략야망실현에 유리하게 써먹으려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춘

《교육칙어》이요, 《교육칙어》를 교육현장에서 공식사용하도록 한것이다.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중학교들에서 총검술을 필수과목으로 배워주는가 하면 파쇼독재광 히틀러의 자서전이라는것까지 교재로 사용하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지금 일본교육계의 현실은 그야말로 칼을 차고 해외침략을 부르짖으며 소학교학생들에게까지 목검체를 쥐여주어 군사훈련에 내몰던 어제날의 군국주의 풍경을 련상케 하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물을 먹이기 위한 일본의 책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에서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감행하고있는 역사교과서의폭력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보편적실례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심히 외곡된 내용들로 일관된 역사교과서들이 뼈저게 검정통과되어 학교들에서 리용되고있다.

일본의 고등학교역사교과서들에는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사가 외곡서술되고 남의 나라 땅이 일본땅으로 빼앗아 올랐는가 하면 일본군성노예관련 내용은 대폭 삭제되고 있으며 일제의 침략죄행을 아시아인민들을 서방렬강으로부터 《해방》하